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6월30일 오전 11시

사회 김기무 집사

*송영	13장(Opening Song)
*신앙고백	사도신경(Apostles' Creed)
경배와 찬양	다같이(Praise & Worship)
합심기도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대표기도	백종희 권사(Lead Prayer)
교회소식	사회자(Announcements)
봉헌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봉헌기도	사회자(Offertory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25:14-30(Matt. 25:14-30)
설교	청지기의 삶 이원규 목사(Rev. John Lee)
*송영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축도	이원규 목사(Benediction)

주일에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6월(June)	7월(July)
헌 금 위 원	함진옥 집사 노은실 집사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안 내 위 원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대 표 기 도	이번주: 백종희 권사	다음주: 김기무 집사
이 번 주 친 교	준비: 김미란 집사 황동필 집사	기도: 오병국 집사
다 음 주 친 교	준비: 고경희 권사	기도: 신혜숙 권사
이 번 주 헌 화	헌화: 마이클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다 음 주 헌 화	헌화: 데이빗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타난다. .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함과 분노를 합리화 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앓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근심걱정에 찌들 었다가도 주께 간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노심초사했 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이 하신 들들에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그런 경험이 되풀이되다 보면 결국 혼란 일이 되지만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빈곤감과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패커와 나이스트롬의 말마따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 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해 야 한다는 사실을 으름가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메마르고 냉담한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보통 것처럼 건조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는 한계를 넘어 영원한 기쁨과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는다.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과 싸우는 사이 사이에 생각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단든지 어렵פות이나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끼어들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 까닭이다.(요4:23) 기도는 그만큼 풍요롭고 또 경이롭다.

기도를 알려거든 성경을 펼쳐라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한다.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갈피갈 피 골고루 스며들어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을 곧 인간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가르치지 않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이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하나같이 친 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섬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옥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옥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옥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옥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2019년 6월 30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기 도

팀 켈러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이란 건 어디에도 없다. 사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힘이 될 수도 있다. 기도라는 이슈를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 중이라면 주위를 돌아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도를 다룬 19세기 미국 신학자 오스틴 펠프스의 책 <응답 받는 기도 원리>는 욱기 23장3절을 인용한 것으로 첫 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연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펠프스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신앙생활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형식을 제대로 갖춘 예배일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제할 때마다 큰 기쁨을 주는 친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띄엄띄엄, 간헐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펠프스는 기도하면서 것처럼 메마른 느낌이 드는 갖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마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견뎌내는 방법을 잇달아 설명한다.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건 영적인 공허함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다. 현대인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걱정하고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실상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떤 약속이 거기에 얽혀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이내 외로움과 시장기가 밀려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이번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 성구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입니다.

3 감사 Thanksgiving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 해주시는 이원규 목사님(웨스트 코비나 소재 카리스 교회)께 감사드립니다.

4 교역자 소식 Ministerial News

고국 방문 일정을 위해 출타 중에 계신 이봉하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7월4일)에 돌아오십니다.

5 KTEE 소식 KTEE News

한순진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간 대구, 서울, 서귀포 등지에서 진행된 TEE 세미나 사역 일정을 은혜 중 마치시고 이번 주간에 돌아오십니다.

6 수료식 Certificate Award Ceremony

오는 7월14일에는 수료 TEE 성경연구 예배소서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자: 고경희, 권새미, 김미란, 김정민, 백종희, 신혜숙, 오병국, 한신옥)

7 청소년 인카운터 및 수양회 Youth Encounter/PK Retreat

미주 한인 나사렛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캠프(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가 오는 7월10-13일에 열리며, 애너하임 연회 어린이 캠프가 7월15-19일에 열립니다.

8 캘린더 Calendar

- OC 원로 중창단, 합주단 정기 모임(본교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 한인 나사렛 청소년 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7월10-13일)
- 애너하임 연회 어린이 캠프(7월15-19일)
- 애너하임 연회 십대 학생 캠프(7월28-31일)

9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6/30 백종희 권사 7/07 김기무 집사 7/14 이조앤 사모
친교기도 6/30 오병국 집사 7/07 신혜숙 권사 7/14 고경희 권사

10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6/30 김미란 집사 황동필 집사 7/07 고경희 권사 7/14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7/21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7/28 목장별 맛 대결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 지난주일 헌금 명단은 7월7일에 게재됩니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기독교 타임즈

헌금이란 '헌'(獻)과 '금'(金)으로 된 글자이다. '헌'(獻)은 '드린다' 혹은 '바친다'를 의미하고 '금'(金)은 '돈'을 의미한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치는 마음, 즉 '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헌'에는 사람의 마음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금을 돈과 동일시하는 무의식적인 사고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바르게 헌금생활을 할 수 있다. 헌금은 '금'보다는 '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되도록 교육하고, 교회도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성껏 헌금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 첫째,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십일조'. 그런데 이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흔히 십일조를 드릴 때 '내 것'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 즉 출발점이 '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재물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일조를, 내 것 열 개에서 하나님을 드린다는 인식에서 하나님의 것 열 개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집회 안내

증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Crumbs for Life

Grace Avoidance

The rules also forbade eating after noon, for the monks lived on handouts and the Buddha did not want his followers to burden housewives. Modern monks got around that rule by stopping the clock at noon each day; after the evening meal, they reset the clock to the correct time.

By its very nature legalism encourages hypocrisy because it defines a set of behavior that may cloak what is going inside. At a Bible college or Christian camp, and even in church, everyone learns how to look 'spiritual'. The emphasis on externals makes it easy for a person to fake it, to conform even while suppressing, or hiding, inner problem.

One of the most sobering passages in the New Testament, and one of few that shows direct punishment, appears in Acts 5: the story of Ananias and Sapphira. The couple had done a very good deed, selling a piece of property and donating much of the proceeds to the church.

- Philip Yancy -